주님의교회

함즐함울

PRESBYTERIAN CHURCH OF THE LORD WEEKLY

통권 제 149호_발행일 : 2005년 11월 6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 12:15)
2005년 교회표어 : 꿈을 꾸고 이상을 보라!

대한 예수교 장로회 주님의교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정신여중고 내)_02-416-5181_www.pcltv.org
기사제보 : 함즐함울 관련사항은 이창현 목사에게 문의바랍니다.
mobile: 011-466-4736 email: chhylee@korea.com

오늘은 "교회번식주일"로 번식의 의미 새롭게 마음에 새기는 시간 가져

길가에교회의 비전, 이인호 목사 주일 예배 설교와 영상 통해 전달해

길가에교회 Gilga Church

2005년 12월 11일 제1호

오늘은 "교회번식주일"로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 가운데 설교와 찬양과 영상을 통해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번식하는 길가에교회의 비전을 함께 나누고 그 의미를 새롭게 마음에 되새기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이인호 목사는 오늘 주일 1-3부 설교와 영상을 통해 교회번식의 의미와 길가에교회 비전을 온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은혜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길가에교회의 비전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과 나누는 삶을 위해 부름 받은 주님의교회의 정신을 이어가며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비전은 우리가 계획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며 약속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루실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응답해 가는 것이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라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자매로 아름답고 정겨운 주님의 가족이 되도록 기도하며 애쓸 것이다. 움츠렸던 어깨가 펴지며 굳었던 얼굴에 미소가 번지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가득 채워갈 것이다.

예수님의 향기여라

"앎"이 "삶"이 되도록 배운 말씀을 겸손히 삶 속에 적용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생명의 향기가 삶을 통해 이웃에 베이게 하므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이들이 많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나아가 이 향기가 땅 끝까지 퍼져 나가도록 구체적인 응답을 해 나갈 것이다.

지도자를 키우라

청소년들, 특별히 동화중고등학생들을 힘닿는 데까지 섬기며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심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어린이를 위한 어와나, 청장년들을 위한 리더훈련, 목회자들을 위한 리더십센타 등을 마련하여 크리스천리더십을 키워가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교회를 세우라

힘주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들을 세우도록 할 것이다. 팽창이 아니라 번식하는 교회의 정신을 가슴에 깊이 품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쓰러져가는 교회를 부축하며 제 발로 설 수 있도록 그들 곁에 다가가도록 할 것이다.

(2면에서 계속)

첫 번식교회 길가에교회
리모델링 개시해

길가에교회

길가에교회 모임장소가 지난 주부터 수리되고 있다. 교회번식 추진위원장인 성백술장로는 수시로 공사현장을 둘러보며 그곳에 뜨거운 애정을 쏟고 있으며, 한득현집사 등 번식교회에 직접 참여하는 이들의 공사현장 감독으로 예배처소가 5주 후면 그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낼 전망이다. 홍기협집사(5-9구역,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는 직접 현장을 몇 차례 방문하면서 멋지고 깔끔한 설계도를 그려왔고, 한욱현성도(4-10구역, 숭의여대 그래픽디자인과 교수)는 보기만 해도 산뜻한 교회로고와 이미지를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11월 중순 즈음에 완성될 홈페이지(www.gilga-e.org)를 위해 노수연집사(1-1구역)가 땀을 흘리고 있는 중이다.

길가에교회 홍보를 위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 김현령목사, 윤태수형제 등 많은 이들이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피아노 기증으로, 커튼 설치로, 헌금으로 혹은 직접 몸으로 교회번식에 참여하는 이들도 생겨나고 있다. 그 외에 많은 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길가에교회는 아름답고 멋지게 세워져가고 있다.

길가에교회 창립예배는 오는 2005년 12월 11일(주일) 오후 5시에 드려진다. 교회번식을 위한 기도회는, 오늘까지 주님의교회 소예배실에서 오후7시에 열리며, 다음 주부터는 길가에교회 공사현장에서 주일 오후 4시에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정신여중고 정문에서 매주일 오후3시20분에 봉고가 출발할 예정이다.

"흔적", 극단 예맥에서 기독교 연극 올려

이번 연극은 한국기독교 120주년과 국가조찬기도회 38주년 그리고 CTS 기독교TV창립 10주년 기념공연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400여년전,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에 볼모로 끌려갔던 비운의 세자, 소현. 폐허가 된 명의 수도 북경에서 소현세자는 독일 선교사 아담 샬을 만나고 그에게서 서구 과학에 대한 많은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그리고 그때, 소현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 하지만 조선으로 귀환한지 두 달만에 목에 걸린 십자가를 부둥켜 안고 독살 당하게 된 소현세자.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인 소현세자의 이야기를 한국기독교 역사를 재조명하는 계기로 삼은 연극 "흔적." 많은 성도들의 연극 관람을 통해 소현세자의 순교자로서의 "흔적"이 어두운 이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영적인 '표적'으로 우리 가운데 되살아나기를 기대해본다.

극단 예맥과 CTS 기독교 TV 주관, (사)대한민국 국가조찬 기도회 주최,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국민일보, 극동방송, (사)한국뮤지컬진흥회 후원으로 10월 29일부터 11월 20일까지 평일(월요일은 공연 없음)과 주말에는 오후 4시, 7시 30분에 "흔적" 연극이 올려지고 있다. 장소는 노량진 CTS아트홀이다.

복지선교부,
오늘 나눔의 물품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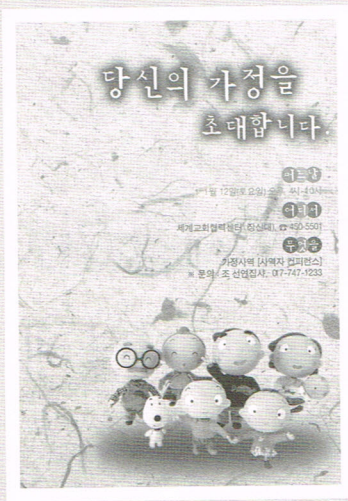
우리의 온정이 필요한 곳이 많아지는 차가운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변에 나눔의 물품이 있으시면 기증해 주세요.

깨끗이 손질하여 기증해 주시면 따스한 마음과 함께 필요한 곳에 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기쁨으로 따뜻한 겨울을 맞이함이 작은 정성 하나 하나가 다른 이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하면 흐뭇해집니다.

작아서 입지 못하는 의류, 신발, 기타 우리생활에 필요한 나눔의 물품을 한 점 이라도 주시면 꼭 필요한 분들께 정성껏 전해 드리겠습니다.

일시: 바로 오늘 / 장소: 1층 로비에서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사역자 컨퍼런스 열려



가정사역팀은 오는 11월 12일(토요일) 〈가정사역자 컨퍼런스〉를 장신대 세례교회협력센터에서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의 목적은 함께 할 사역자 가정을 모집하고, 우리교회 가정사역의 방향을 공유하며, 사역자들간의 교제와 단합이다. 가정사역팀은 기존 가정의 치유나 회복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욱더 성숙한 가정이 되도록 돕고 격려하는 차원의 사역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것을 함께 이루어갈 준비된 사역자 가정을 찾고 있다. 이날 진행될 전체내용은 먼저 소그룹별로 모여 서로 소개하는 시간과, 사역자들에게 보여주는 주님의교회 가정사역의 비전제시, 그리고 친교하며 저녁를 한 후 이병준목사(지구촌가정 사역원총무)의 강의로 '부부심리검사'를 통한 도전과 변화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그리고 기도회 및 결단식으로 행사 전체가 마감될 것이다.

참여대상은 부부로써 이 사역에 동참하길 희망하는 주님의교회 전교우들이며, 사전에 기존 가정사역팀에 참여를 희망한 사람들이다. 주로 지난 7월 〈주님의 가정을 꿈 꾸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가정사역에 관심을 가져 주셨던 교우 및 8월 21일부터 5주에 걸쳐 주님의교회 아버지학교를 은혜롭고도 성공적으로 졸업하신 아버지들 부부가 일차 선정이 되었고, 추가로 함께 사역에 임하실 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가정사역에 사역자로 동참하길 원하는 주님의교회 성도들은 오늘까지 박중순집사(011-253-2621)와 조선연집사(017-747-1233)에게 개인적으로 신청하고 〈사역자 컨퍼런스〉에 참여하면 된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목적하신 아름다운 가정으로 성숙되어, 이 한반도와 온 우주가 밝은 웃음과 평화로 물드는 그날이 올때까지 가정을 주제로 하는 이 사역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사역자 컨퍼런스〉를 통해 이 일에 헌신하는 많은 성도들이 탄생되길 희망한다.

(1면에 이어서)

오늘은 "교회번식주일"로 번식의 의미 새롭게 마음에 새기는 시간 가져

이 거룩한 비전을 위해 당신이 필요합니다!

청소하실 분, 주차안내하실 분, 안내하실 분, 화단 가꾸실 분, 성가지휘하실 분, 반주하실 분, 교사로 봉사하실 분, 찬양으로 봉사하실 분, 사무실에서 봉사하실 분, 그림 · 글씨 · 디자인으로 봉사하실 분, 소그룹 리더하실 분, 각종 상담하실 분, 커피와 둥글레차를 타실 분, 어린이 축구팀을 섬길 분, 국수국물을 만드실 분, 탁자를 닦으실 분, 인터넷홈페이지 관리하실 분, 음향 · 영상을 맡으실 분, 녹음하실 분, 동화중고등학교 기도어머니 하실 분, 중보기도하실 분, 새식구 환영하실 분, 양육하실 분, 아기와 놀아주실 분, 휠체어 밀어주실 분, 의자 정리하실 분, 교회신문 "길가에서"(가칭) 만드실 분, 사진 찍어주실 분 그리고 부담 없이 쉴 분 등 누구나 환영합니다.

길가에교회 번식기도회는 오늘까지 저녁 7시에 소예배실에서 기도회를 갖고, 다음 주일부터는 동화중고등학교 교실 하나를 빌려 그곳에서 오후 4시에 기도회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주님의교회 첫 번식교회가 되는 길가에교회 창립예배는 12월 11일로 계획되어 있다. 성도들의 많은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여선교회 전체 연합 모임 가져

11월 3일 목요일 10시 30분 소강당에서 2005년 연합 여선교회 마지막 예배가 있었다.

홍민기 목사는 "옥합"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4:3-9절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다. 마리아는 300 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부었다. 그 시절의 화폐가치로 이것은 그 여인의 전 재산에 가까운 가치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주위의 사람들, 즉 예수님의 제자도 그것을 낭비로 생각하여 더욱 가치있게 사용할 수 있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고 최선을 다해 주님을 사랑한 여인을 복음과 함께 영원히 기억되리라 말씀하셨다. 이와같이 우리도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 즉 우리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그 순간부터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했다. 특별히 주님의교회는 어느 누구를 지적하여 강압적으로 주의 일에 동참시키지 않는다. 그러므로 스스로 자신의 옥합을 깨뜨리는 결단을 하지 않으면 주의 일에 참여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 말했다. 이 말씀을 통해 모든 여선교회 회원들은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것인지를 깊이 생각했다.

너무 좋은 날씨와 아름다운 단풍 때문인지 적은 인원만이 예배에 참석했다. 주님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지 못해 안타까웠다. 내년에는 더욱 많은 분들이 여선교회 전체 연합모임에 참여해 주길 기대한다.

7교구 3구역 구역모임,
"천국 잔치에 초대합니다!"

7교구 3구역은 교회 내에서도 오랫동안 같은 식구가 구역모임을 하는 구역이다 보니 서로 서로 너무 잘 알게 되고 매우 친하다. 웬만한 친척보다 더 자주 만나다보니 서로간의 말없는 묵인 하에 아무런 죄책감 없이 구역모임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성원이 되는 날이 많지 않다. 따라서 구역모임 전날이면 구역장의 기도는 거의 같은 내용이 된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구역 모임에 구역 식구들이 많이 참석하도록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구역장과 여자 집사님 또는 권사님들 간의 모임이 되게 마옵시고 (누가 이런 구역장의 마음을 알까?) 남녀평등을 우리 구역에서도 허락하시는 은혜를 부탁드리나이다." 그런데 이번 모임에서는 교재 공부를 떠나 기도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어 보았는데 평소에 겸손해 마지않는 집사들이 신앙심 깊고 뚜렷한 소견을 말하는 것을 보고 지금까지 서로의 대화를 강조하면서도 가르치려고만 한 구역장의 모습이 부끄러웠다.

"다음 모임에서는 우리 구역 식구 전원이 참석하는 중보기도로 구역공부를 대체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어느 집사님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어느 집사님은 구역식구, 어느 집사님은 교회, 어느 집사님은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등 전원에게 기도를 맡기고 찬송과 기도를 인도하게 부탁했더니 모두가 눈에 띄게 달라지며 그 눈에서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타오르는 것을 보았다. 아멘. 이런 느낌은 3년간 구역 모임에서 처음으로 느낀 것이다. 이제 우리 구역이 정말 어디로 가야할 것인가에 대해 분명 깨달았다. 우리 구역이 구역 공부와 친교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와 헌신을 통해 이웃 간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 교회의 비전을 방관자로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데 모든 힘과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

다음 구역 모임이 너무나 기다려진다. 이 시간은 정말 우리 구역 식구 전원이 참여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실현되며 우리 모두의 헌신을 결단하는 성령충만한 시간이 될 것이다.

여기가 천국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모두를 이러한 천국 잔치, 구역모임에 초대한다.

청년새벽부흥기도와 함께 하는 수험생과 학부모 기도회 계속 진행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아침 6시 15분에 중예배실에서 있는 청년새벽부흥 기도회가 지난 주간부터 수험생들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여 기도하는 시간으로 그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윤은성 목사와 홍민기 목사가 함께 말씀을 전하고 있다. 매일 아침마다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축복하며 세상으로 파송하는 기도를 함께 하는 윤은성 목사 옆에는 고등부를 섬기는 유성훈 전도사가 새벽부흥기도에 나오는 수험생들과 고등부 학생들을 위해 매일 아침 축복하며 격려하며 기도하는 줄이 한 줄 더 생겼다. 다른 어떤 기도보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임재 안에서 영적인 평안을 누리며 그들의 긴장과 두려움이나 떨림이 주님의 사랑과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 평안케 되어 남은 시간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있다. 부모들도 함께 나와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들도 볼 수 있으며, 기도회를 마친 후 아침식사를 함께 하고 학교로 바로 등교하는 청소년들과 직장으로 바로 출근하는 청년들과 부모님들의 모습도 아마도 주님의 교회에서만 볼 수 있는 진풍경일 것이다. 매일 아침 식사를 섬기시는 귀한 성도님께서는 준비해야 할 식사량이 늘었음에도 오히려 더 기뻐하신다. 300명이 되기까지는 혼자서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고 헌신하며 직접 기도에 참여하는 이들보다 더 큰 열정으로 섬기시는 모습이 도전과 격려가 된다. 기도하는 청년들과 청소년, 학부모가 있는 주님의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임에 틀림없다. 함께 이 은혜를 누리시도록 성도들을 초청한다.

전화상담부

그리스도인에게 환난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므로 그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다. 체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인내와 위로와 기도를 필요로 한다. 막막할 때, 누군가로부터 위로받고 싶을 때, 내 생각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 묻고 싶을 때, 자신의 아픔을 누군가에게 진솔하게 나누고 싶을 때 필요한 것이 상담이다. 상처를 드러내면 사람의 반응이 갈린다. 얼굴을 찌푸리며, 흉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가까이 다가와 닦아주고 씻어주는 사람도 있다. 그 반응이 두려워 우리는 마음을 닫을 때가 많다. 좋은 생각이 자신을 바꾸며, 마음을 바꾸면 인생이 열리게 된다. 두려움 때문에 중도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전화상담을 시도하길 기대한다. 전화상담부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어떤 경우에도 비밀을 지켜 드린다.

"전화상담부는 당신의 일을 정말로 함께 염려합니다."

상담 시간

화~금 오전 9:00-12:00
오후 1:00-5:00
토요일은 오전 ☎ 416-5183

함즐함울 문예지 발간 예정

매주일 나오는 함즐함울에 다 싣지 못하는 성도들의 간증, 수필, 시 등을 모아 함즐함울 문예지 별책을 만들려 합니다.
글을 내 주실 성도는 4층 교역자실 간사에게 교구구역과 이름, 연락처와 원고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원고는 E-MAIL로 주시면 편집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문예지 발간은 글이 모이는 대로 11월 추수감사주일이나 12월경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유년부 교사MT, 교사 격려의 시간 가져

유년부 교사엠티가 지난 10월29일(토)~30일까지 양지 파인 리조트에서 있었다.
담당 전도사와 교사들은 토요일 2시에 모여서 2시30분쯤에 출발하였다. 제법 쌀쌀한 날씨였지만 창밖에 조금씩 물들어 가는 산들을 보면서 교사들 각자 가을단풍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하며 목적지를 향했다.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고, 먼저 해가 지기 전에 산책을 하러 밖에 나갔다. 산 쪽에 위치한 곳이라 날씨가 제법 추웠지만, 단풍지고 있는 가을 산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대한 아름다움을 고백하며 감사드렸다.
산책을 마치고, 성운경 교사의 스파게티요리와 김진호 교사의 새우소금구이, 박선화 부장집사의 제육볶음 등으로 맛있는 저녁식사를 하면서 그동안 교사들의 수고(여름성경학교와 각종 행사 등)를 격려하며 보냈다.
또 저녁에는 볼링대회, 노래자랑대회를 열어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날은 사역을 위해 아침 8시에 출발하여 9시에 교회에 도착하였다. 7월에 부임한 새로운 이진화 전도사와 처음으로 함께한 교사들은 이번 교사엠티를 계기로 더 끈끈한 동역자임을 느끼며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오늘 4부 예배, "이걸 어떻게 참아요?"

오늘 4부 예배는 "이걸 어떻게 참아요?"라는 주제로 예배에 낯선 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된다. 오늘 4부 예배의 특별 순서로는 워십 댄스를 통하여 온몸으로 찬양을 드리며, 교회와 예배가 낯선 이웃들에게 적합한 주제로 친근한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게 된다. 많은 교우들이 오늘 4부 예배를 전도의 장으로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참여해 주기를 당부드린다.

오늘 4부 예배의 순서는 아래와 같다.

1. 오신실하신 주("Great is Thy Faithfulness", T.O.Chisholm 曲) _ 오늘 연주팀
2.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Worship Dance) _ 박혜진, 박여름, 염은영, 이세연, 양주연, 박미현, 윤지연
3.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To be pleasing You", Teresa Muller 曲) _ 색소폰 연주 이종우
4. 주께 가오니(Worship Dance, Geoff Bullock 曲) _ 황희정, 윤지연
5. 이걸 어떻게 참아요? _ 문동학 목사
6. 기쁨 I (이종익 曲) _ 최성은

2005-2006 교사훈련원 열려

지난주일(10월30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1층 소예배실에서는 2006년 교회학교를 섬길 교사들을 위한 교사훈련원 강의가 시작되었다.
홍민기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강의에는 약 50명이 넘는 신입교사들과 231명의 교사들이 함께 참여했다. 홍민기 목사는 '교사의 사명' 에 대해 말씀을 전했다. 교사의 사명은 믿는 자의 사명과 같다. 우리가 스스로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획을 이루실 것을 믿고 의지하여야 한다. 우리의 사명과 목표는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사역을 하고, 그것에 대해 다른 교회에 알리는 것이다. 경험하지 못한 것을 가르치면 파워가 없다. 때문에 하나님께 체험주시기를 간구하고, 말씀으로 거룩함을 붙잡아야 한다. 우리는 유능하려고 하지 말고, 거룩하려고 해야 한다. 피한 방울까지 드리려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삶이 번죄가 된다면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교사사역을 통해 하나님은 간증거리를 주시므로 2006년은 교회학교의 모델이 되고, 간증거리를 주시기를 간구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였다.
말씀이 끝난 후 교회학교를 위한 기도의 시간이 있었다. 다같이 통성으로 청소년들과 교사들을 위한 기도를 드렸다.
기도 후 간식시간을 잠깐 갖고,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졌다. 홍민기 목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나를 힘들게 하는 아이를 붙잡아야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있다. 이 아이들을 위해 주님께 간구하여야 한다. 아이를 위한 기도가 쌓이면 그 아이는 반드시 변화된다. 아이들도 가슴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교사를 만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하였다.
4주간 진행되는 이 강의는 이번 주(6일)에도 새로운 교사를 원하는 성도가 참여할 수 있다.
오늘은 홍민기 목사의 '교사의 사역' 에 대한 강의가 3시부터 소예배실에서 이어질 것이다. 주님의 교회 교회학교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난 것에 비해 교사의 수가 부족한 편이므로 새로운 교사가 많이 필요한 실정이다. 교회학교 교사를 원하는 성도는 로비에 있는 '교회학교 교사모집 데스크' 로 문의할 수 있다.

장로성가단 창단 20주년 기념 정기연주회 가져

1985년 창단된 한국장로성가단은 금년으로 창단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창단 20주년 기념 정기연주회를 지난 목요일(11월 3일), 오후 7시 여의도 KBS홀에서 가졌다. 우리교회에서는 구자삼 협동장로가 단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시각장애인에게 광명을" 이라는 주제 아래 안구기증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으로 나누어 주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바리톤 최현수와 뉴욕권사선교합창단, 아가페 핸드벨 앙상블, 서울브라스콰이어가 함께 협연했다.

"함께 사역할 동역자를 기다립니다"

재난발생 지역이나 긴급구호가 필요한 곳에 즉각적으로 파견되어 지원 사역에 동참하실 분을 찾습니다(연락하실 곳: 김영중 안수집사 016-741-8309).

1. 봉고나 트럭을 비상시 제공할 수 있거나 운전가능 하신 분
2. 주택건설 및 보수작업에 경험이 있으신 분(목수, 벽돌, 도배 등)
3. 주택내 전기배선 및 수리 가능하신 분
4. 가전제품 수리 가능하신 분
5.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자격증 소지하신 분이나 경험이 있으신 분
6. 의사, 약사, 간호사

2006년 청년 공동체

이끌어갈 청년리더십 선거 시작해

2005년도에 기존의 전통적인 회장단 중심의 틀을 사역팀과 소그룹으로 재편하며 청년공동체의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왔던 청년공동체에서 올해는 선거 문화를 전통적 총회 형식에서 새로이 개선된 방식으로 바꾸어 실시한다. 예년엔 총회 일자에 모여 추천과 투표를 한자리에서 진행하게 되어 후보자에 대한 사전 지식과 기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새로이 개선된 선거 방식은 먼저 선거 방식과 일정을 한 주간동안 공지(10월 23일)하고 기도한 후 서면으로 후보자를 추천(10월 30일)하고 다시 한 주간에 걸쳐 후보자 확인과 선거명부 확인 작업을 거친 후 후보자들의 소견 발표(11월 6일)와 다시 한주간 동안의 기도를 거쳐 최종적으로 투표일에 투표(11월 13일)하는 방식으로 약 한달 간에 걸쳐서 기도와 함께 모든 선거일정을 진행하게 되었다.
한사람의 목회자 중심이 아닌 청년 리더십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끌어가는 청년공동체로 성숙해 가기 위해 행정 사역팀을 중심으로 11개 사역팀장과 소그룹의 리더들로 이루어진 청년 리더십 그룹을 형성하여 담당목사, 장로, 집사, 전도사, 간사들로 구성된 목회 사역팀과의 동역으로 이끌어가는 청년공동체의 선거를 위해 성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린다.

교회후원 선교사, 선교지 사역 동정

주 안에서 사랑하는 주님의교회 성도님께

해산의 수고, 나눔의 기쁨 / 가정모임과 가장들 기도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4개의 가정 모임이 학기 중간인 지금까지 꾸준히 6시부터 7시 30분까지 모여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들이 자기에게 허락된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며 격려하고 섬기는 모습들이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밀알 모임의 지체들이 주의 자녀로 태어나고 자라날 것입니다. 이제 조금씩 다음 학기를 준비해가는 시간인데 새로운 가장들과 이들을 훈련하는 일들이 잘 계획되고 준비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 가을 연합 수양회

지난 해 까지 밀알 가을 수양회로 모였던 추수감사절 수양회가 지역의 교회 청년부들의 연합 수양회로 전환되어서 첫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역에 있는 4교회 청년부가 공식 참여하고 2교회 정도가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결정이 늦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반응들이 있었고 대략 70-90명 정도의 지체들과 5-7명 정도의 사역자들이 같이 2박 3일의 시간동안 "내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비영리 법인 등록과 재정 확보를 위하여

지난 한 학기동안 구체적으로 준비해오던 비영리 법인 등록이 11월 안에 완결되어 질 예정입니다. 비영리 법인 등록은 밀알의 향후 구체적인 사역의 기초를 놓는 일에 그리고 사역자들을 후원하는 구조적 재정적 기초를 놓는 일에 첫 출발을 띄는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 히 이 일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밀알 모임이 지역교회와의 바른 관계와 효과적인 캠퍼스 사역 단체로 세워지기 위한 자문 위원(지역 교회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6-8분 정도를 위촉하려고 함)들과 실행 이사(캠퍼스 사역을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후 원하실 수 있는 평신도 개인들로 10-12명 정도를 위촉하려고 함)들을 세우고 구체 적인 후원 그룹을 조직적으로 모으려는 계획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일들은 향 후 밀알 사역이 전문적인 캠퍼스 선교단체로 자리를 잡고 보스턴 지역에서 지역교회와 함께 보스턴 지역의 부흥을 위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중요한 사역적 필요를 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실 때에 이런 프로젝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지역 교회들과 적절한 관계들이 세워지며 적절한 후원자들을 주님이 보내주시도록 그리고 밀알 사역을 그분들에게 적절하게 소개하고 의견들 을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이 있는 11월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사역에 감사의 기도와 기쁨들이 넘치시길 기도드립니다. 그 기쁨과 감사로 인하여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가 다시 한 번 복되고 아름다운 자리로 확인되며 그렇게 부르신 주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길 기도드립니다.

보스턴에서 최 용하 목사 드림